

Calvin의 人間觀

元 鍾 興*

〈目 次〉

- | | |
|-------------------|----------------------|
| I. 序論 | 3. 福音은 人間을 爲한 救贖役事이다 |
| II. 墮落한 人間 | IV. 救援을 받은 人間 |
| 1. 神的 形像이 喪失됨 | 1. 人間이 要請하는 믿음이란? |
| 2. 人性의 完全한 腐敗 | 2. 悔改를 體驗한 人間 |
| 3. 善惡 二元的 葛藤의 存在 | 3. 以信得義된 人間 |
| 4. 被造物의 加害者가 된 人間 | 4. 聖靈을 體驗한 人間 |
| 5. 人間死亡의 招來 | 5. 人間은 祈禱의 存在 |
| 6. 失樂園의 悲劇을 招來함 | 6. 聖書의 人間形像 |
| III. 救贖을 要請하는 人間 | V. 結論 |
| 1. 人間救援의 必要性 | 參考文獻 |
| 2. 人間救援은 福音에 起因한다 | |

I. 序 論

自然主義 教育者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 ~ 1778)는 兒童의 心性을 開發함으로 理想의 人間을 創造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¹⁾ 英國의 經驗主義者 존 록크(John Locke, 1632 ~ 1704)는 「Tabula Rasa」라고 人間心性을 定義함으로서 人間의 本質을 처음부터 無罪性의 存在, 無邪氣한 實存으로서 觀察한다. 이러한 教育學者들은 人間속에 內在하고 있는 內的秩序에 도움을 줌으로서 卓越한 경지에까지 環境變化를 주면 가장 理想의 人間이 된다고 말하였다. 이는 니이체(Friedrich Nietzsche)가 神學을 포기하고 過去의 價値觀과 人間觀에 挑戰하고 超人(Übermen-

* 教養教育課程 擔當 助教授

1) 원종홍, 「東西哲學思想史」(서울 : 수덕문화사, 1981), p.303.

sch)을 주장하므로人間은 罪人도 아니요 無力者가 아님을 「Also Sprach Zarathustra」에서 宣言한 것 以前의 豫言者들의 共通見解이다.

그러나 改新敎의 創設者 칼빈(John Calvin)은 人性을 聖書에 根據해서 分析하고 革新的인 새 人間敎育을 樹立하였다. 그는 人間本性을 本質적으로 無力하므로 타락하였고 世俗都市(The secular city)에 서식하는 동안 滅亡할 수밖에 없다고 定義하였다.

II. 타락한 人間

神의 最大 結 작품인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엄한 至上命令으로 制約하였다. “에덴의 實果는 먹어도 善惡果는 범하지 말라.”²⁾ 이러한 嚴命은 人間을 人間답게 살 수 있는 最初의 絶對法이다. 이는 惡한 慾望에 이끌려 그 以下の 것을 追究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³⁾ 目的이 있다. 하나님의 約束은 生命의 나무 열매만을 먹는 永生福樂의 所望이 있지만 反對로 善惡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그 瞬間 죽음의 선고가 내린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그의 信仰의 試金石이 된 것이다.⁴⁾ 여기에서 Calvin은 人間이 自己自身에 對한 知識을 갖는 것이 大端히 重要하다고 했다. 理由는 人間은 自身에 對한 知識을 가지므로 하나님께서 創造할 때에 부여하신 禮物이 얼마나 貴한 것이었다는 것과 타락 이후의 人間이 얼마나 비참한 狀態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意味하는 까닭이라고⁵⁾ 말한다. 칼빈은 타락에서 結果된 人間을 아래와 같이 分析했다.

1. 神的 形像이 喪失됨

自然主義者나 Kant는 人間의 本性이 未開의 存在에서 昇華發展한 文明化 或은 道德人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Calvin은 人間의 不順從으로 因하여 하나님의 形像을 喪失하게 되었고 義와 知識과 聖스러움의 本性이 喪失된 것이라고 말했다.

2) 창 2·17.

3) Calvin, J.,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McNeill.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 1967, II. 1. 2.

4) *Ibid.*

5) *Ibid.*, II. 1. 1.

따라서 人間은 “肉體의 慾心을 따라 지내고 肉體의 所願하는 것을 하며 本質上 眞
노의 子女”⁶⁾ 가 된 것이다.

2. 人性의 完全한 腐敗

칼빈은 “아담이 義의 源泉을 버리고 난 以後에 靈魂의 全部分은 罪로 因하여 占
領당하게 된 것이다”⁷⁾ 고 말한다. 이는 Augustinus Confessiones 에서의 人間 타락
과 類似한 人間分析이다. Augustinus 는 “태어난지 하루뿐인 어린이에도 罪는 있다”⁸⁾
고 말한다. 偉大한 使徒 바울은 “義人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者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無益하게 되고 善을 行하는 者가 없다”⁹⁾ 고 말했다. 따
라서 人間은 靈的인 善行에 對해서 無力해졌고 人間은 全的 腐敗, 全的 無能力(Tot
tal depravity, Total inability)에 빠진 것이다.¹⁰⁾ 칼빈은 人間腐敗의 證據를 聖書에
서 밝혔다.¹¹⁾ “萬物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¹²⁾

3. 善惡 二元的 葛藤의 存在

使徒 바울은 全的으로 墮落한 人間의 苦惱를 스스로 代辨하였다.¹³⁾

Augustinus 는 confessiones 를 통하여 이러한 苦惱를 體驗했기 때문에 樂觀的인
Zoroaster 교에서 改宗할 수 있었다. 使徒 바울은 全的으로 墮落한 人間이기 때문
에 善을 行할 수 있는 能力이 없음을 告白했다. “내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法을
즐거워 하되 내 支體 속에서 한 다른 法이 내 마음의 法과 싸워 내 支體 속에 있
는 罪의 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¹⁴⁾

이러한 바울의 고민은 自身の 것만이 아니라 人類 全體들도 共感하는 宗教的 苦
惱인 것이다. 이는 過去에 自慢에 處했던 바울이 Christ 의 眞理 앞에 自我를 던져

6) 엡 2:23.

7) 엡 2:33.

8) Augustinus, Confession, 全炳昊 譯, 集文堂, p.20.

9) 롬 3:10-12.

10) 칼빈주의, 「목회연구원 논문집」(1981), p.99.

11) Calvin, II. 2. 2.

12) 램 17:9.

13) 롬 7:22-25.

14) 롬 7:22-24.

버린 謙虛요, 神前에서 음폐할 수 없는 바울의 實存像이라. 神 앞에 서 있는 「Existence」이다. 니이체는 謙虛의 德을 奴隸의 道德이라고 攻擊하였지만 바울은 謙虛의 德人은 Christ 안에서 가장 強力한 實存이라고 逆說하고 있다. 果然 謙虛의 힘은 驚異할 만큼 크다. 그것이 바로 「外柔內剛法則」이요 「ἀραπνη」法則이다.

칼빈은 使徒 바울이 人類의 傲慢을 타도하려고 다음 같이 一擊을 加했다고 말했다.¹⁵⁾ “義人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者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者도 없고 다 치우쳐 無益하게 되고 善을 行하는 者도 없도다”¹⁶⁾

4. 被造物의 加害者가 된 人間

아담과 이브로 因한 不順從과 罪의 代價는 非靈的인 物質世界와 宇宙에 居하는 萬物에까지 影響을 입었으며 저들 萬物은 苦痛하고 있다. 그러므로 萬物들은(人間을 除外한) Christ 가 와서 原狀復舊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¹⁷⁾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한 代價로 “땅은 너로 因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終身토록 受苦하여야 그 所産을 먹으리라”¹⁸⁾ 고 宣言하였고 바울도 被造物의 연대적 被害를 입었다고 말했다. “被造物의 苦待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被造物이 虛無한데 屈服하는 것은 自己 뜻이 아니요 오직 屈服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被造物로 穢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解放되어 하나님의 子女들이 榮光의 自由에 이르는 것이라 被造物이 이제까지 함께 嘆息하며 苦痛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¹⁹⁾

人間의 罪값으로 被害를 입은 被造物은 그러므로 크리스트가 다시 倒來하기를 갈망한다. 原狀復舊는 萬物의 希望이다.

5. 死亡의 招來

人間의 罪代價는 人間 스스로가 永生할 수 없는 存在, 不可不 죽을 수밖에 없는 死亡의 存在로 나게 되었다. 여기에 對하여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罪가 世上에 들어왔고 罪로 말미암아 死亡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罪를 지었

15) Calvin, II. 3. 2.

16) 롬 3:11-14.

17) 롬 8:22.

18) 창 3:17.

19) 롬 8:19-22.

으므로 死亡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²⁰⁾ 이는 人間의 범죄로 因하여 死亡의 法에 從屬되어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豫知하셔서 아담 이브에게 死亡의 무서운 原則을 警告하셨고 犯罪하지 말 것을 처음부터 勸告하신 것이다. “善惡을 알게 하는 나무의 實果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²¹⁾ 그러므로 人類의 死亡法則은 Jaspers의 말처럼 限界情勢²²⁾가 아니며 또 自然法則도 아니다. 萬若 犯罪치 않았더라면 永生이 可能했을지도 모른다.

6. 失樂園의 悲劇을 招來함

人類에게 닥쳐온 失樂園의 悲劇은 Milton의 「Paradise Lost」에서 묘사된 것보다 더욱 悲劇적이다. 끊임없는 戰爭과 殺傷은 實로 失樂園의 悲劇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東山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根本된 土地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東山에 그름들과 火焰劍을 두어 生命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²³⁾ 아담은 하나님과의 첫 계약(禁果)을 파기함으로써 에덴東山人의 資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人類가 理想하는 에덴東山の 所有權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더 以上 至高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이다.

Ⅲ. 救贖을 要請하는 人間

人類의 祖上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禁果를 먹음으로서 하나님과의 言約을 破壞하게 되었다. 이는 人間이 神의 絕對命令보다는 Satan의 煽動에 유혹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는 神을 肯信함이요 墮落의 뿌리가 된 것이다. 이러한 패륜은 아담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豐盛하신 繕物을 철면피하게 無視하고 탐냈기 때문이다. 人間은 神의 形像을 따라 被造된 事實을 過少 評價하고 하나님과 同等化하려는 狹窄한 思考는 하나님께 不敬罪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罪는 對人關係의 道德的 罪도 아니요 神에 對한 不敬의 罪가 된다. 이러한 不敬의 罪는 人間으로 하

20) 롬 5:12.

21) 창 2:17.

22) 원종홍, 「東西洋思想史」, p.350.

23) 창 3:23-24.

여금 生命의 根原이신 하나님으로부터 斷切을 招來하는 悲劇을 가져왔으며 그러한 結果로 靈魂과 肉體의 機能이 全的으로 腐敗해졌고 終乃에는 滅亡의 늪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한 사람이 不順從함으로 많은 사람이 罪人”²⁴⁾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이 墮落하였고 아담에게 주어진 罪와 허물과 죽음의 罪責이 모든 後嗣들에게 轉嫁된 것이다. 이러한 罪人들을 神은 救援하기 爲하여 예수는 地上에 降臨하셨다. 故로 人間들은 自身의 行爲(善行, 積善, 功積)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寶血로서만 罪赦함받고 救援을 받는 것이다. 超人哲學者 Nietzsche는 從來의 基督論과 價値觀을 抗辨하면서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를 主張하였다.

Aquinas의 傳統的 神學에 倒戩한 Nietzsche는 “神의 無用論”과 “死神의 神學”을 宣言하여 “人間의인 너무나도 人間의인” 超人으로서 世上을 警歎하게 할 만큼 “死神의 王者”로 君臨했다. 따라서 人間을 向한 Christ의 救援의 必然性이나 人間들의 要請을 嘲笑하면서 Zarathstra에게 耳目을 集中시켰지만 그는 最後의 瞬間 再次 Christ의 救援을 要請했다고 한다. 이것은 人間의 軟弱했음을 立證하는 하나의 代辨이요 죽음 앞에서의 人間의 眞實성과 人間은 天使일 수도 없고 惡魔일 수 없는 軟弱한 人間임을 보여 준다. Christ의 救援을 抗拒했던 Nietzsche는 來世觀을 外面하리 만큼 強力한 超人(Übermensch)이 못되었기에 “超人的 永劫回歸”를 代置한 것이 아닌가? 人間은 처음부터 救援을 要請할 수밖에 없는 存在이므로 第1直觀을 통한 宗教性이 있는 것이요 人間의 宗教性은 文盲을 不問하고 時代를 超越해서 普編的인 것이다.

1. 人間救援의 必然性

罪와 허물로 因하여 神과 원수되었던 人間을 爲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臨하시게 되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罪를 爲하여 和睦祭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²⁵⁾고 바울은 말했고 또 예수의 十字架의 죽으심과 復活의 救贖事件으로 이루어진 福音을 다음 같이 定義하였다. “福音은 모든 믿는 者에게 救援을 주시는 하나님의 能力이 됨이라”²⁶⁾ 또한, 그의 宣敎의 目的도 사람으로 하여금 救援을 얻게 하는데

24) 롬 5:7.

25) 요 1서 4:10.

26) 롬 1:16.

있었기 때문에 “兄弟들아 내 마음에 願하는 바와 하나님께 求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爲함이니 곧 저희로 救援을 얻게 함이라”²⁷⁾ 이 救援은 전혀 Christ의 福音을 通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 人間이 罪로 因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의 진노의 對象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爲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對한 自己의 사랑을 確證”²⁸⁾ 하셨다.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救贖事件은 人間의 歷史 안에서 人間의 行爲와 아무런 關係 없이 無條件 이룩한 聖스러운 事件이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救贖의 事件이 바로 人間救援의 根據요 唯一한 方便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救援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行爲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自己 뜻과 永遠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²⁹⁾ 고 하였다. 원초적인 人間은 하나님의 形像(참知識, 義)대로 被造되었으나 犯罪하여 墮落하므로 거룩한 形像을 다 喪失해 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基督教教育의 使命은 하나님의 形像을 恢復하여 失樂園 이전의 本來的인 狀態로 復舊시키는 일이다. “福音에는 하나님의 義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³⁰⁾ 하기 때문에 恒常 被教育者로 하여금 福音으로 救援얻게 하여 하나님의 形像을 恢復한 人間에게로 教育하는 일이어야 한다.

2. 人間救援은 福音에 起因된다

使徒 바울은 福音에 對해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女人에게 나게 하시고 律法下에 나게 하신 것은 律法下에 있는 者들을 贖良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名分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³¹⁾ 고 말했다. 즉, 福音은 예수 그리스도를 通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救援役事로서 예수의 十字架 事件과 復活事件이 福音의 核心이다.

이 福音을 通해서 救援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眞理의 말씀 곧 너희의 救援의 福音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約束의 聖靈으로 印치심을 받았으며”³²⁾ 라고 하였다. 福音의 中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代贖의 事件이 個人에게 전파될 때 거룩한 救援의 役事が 나타난다. 福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通한 救援

27) 롬 10:1.

28) 딤후 1:9.

29) 롬 1:17.

30) 롬 1:17.

31) 갈 4:4-5.

32) 엡 1:13.

役事 自體이므로 이 福音이 믿음과 救援, 平和, 重生, 그리고 永生을 可能케 한 것이다.

3. 福音은 人間을 위한 救贖役事이다

앞에서 救贖은 福音으로부터 誕生했음을 明示했거니와 그 福音은 바로 그리스도의 救贖使役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救贖使役의 目的은 教訓과 治病하는 奉仕에 있는 것이 아니라 十字架에 있다. Christ의 十字架는 勿論 人間을 爲한 것이기 前에 하나님께 向한 犧牲이요(人間 예수의) 祭祀行爲이다. Christ의 祭祀行爲는 純潔하고 흠도 없으신 證보자가 되어 聖潔에 依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和解시켜 주시는 것이다³³⁾ 고 Calvin은 主張하였다. 하나님의 公義로우신 저주는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接近을 막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審判主로서의 직원으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다.³⁴⁾ 따라서 祭司長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爲하여 하나님의 恩惠를 얻고 그의 震怒를 진정시키기 爲하여 보상으로 介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職分을 遂行하기 爲하여 祭物을 갖고 中間에 나올 必要가 있었다.³⁵⁾ 律法下에서도 祭司長은 피없이는 至聖所에 들어갈 수 없었다(히 9:7). 이는 人間들로 하여금 先知者들로 因하여 祭司長이 그들의 仲保者로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을 때라도 그들의 罪에 對한 補償이 치루어지지 않는 限 하나님께 和解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³⁶⁾ 히브리 記者는 祭司長 職分은 그리스도에게만 屬한 것이니 이는 그의 죽음의 犧牲으로서 그가 우리의 허물을 씻어 버리고 우리의 罪를 爲한 公義를 充足케 하였다고 말했다.³⁷⁾ 하나님의 嚴肅한 誓約을 通하여 憐우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行하신 이 事實이야말로 重大事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네가 永遠히 滅기시택의 反차를 좇는 祭司長”³⁸⁾ 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서 人間의 救援全體의 成敗가 判가름나는 岐路라고 強調하신 것이 틀림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人類의 祭司長으로서 人間의 罪를 씻어 주시고 潔하게 해 주시고 우리 人間의 犯罪와 惡으로

33) Calvin, II. 25. 6.

34) *Ibid.*

35) *Ibid.*

36) 예 16:2-3.

37) Calvin, II. 25. 6.

38) 히 5:6, 7:15.

말미암아 온 더러움 때문에 우리를 막고 있었던 恩惠를 우리를 爲해서 가져다 주지 않는 限 우리 人間들의 祈禱는 하나님께 接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始作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의 祭司長職의 效果와 利益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기 爲함임을 識別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그리스도는 우리 人間의 永久한 代言者요 그의 祈願을 通하여 하나님의 恩惠를 받게 된다.³⁹⁾ 따라서 이러한 前提下에 우리가 祈禱할 때 信賴가 일어나고 敬虔된 良心의 平安까지 獲得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慈悲에 確固하게 依地하며 또 仲保者께서 하나님께 奉獻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確信을 갖게 된다. 勿論, 하나님께서 律法下에서는 自己에게 動物祭司를 命하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新約時代) 新法이 있어서 그가(Christ) 祭司長과 祭物이 함께 되신 것이다. 그 理由는 이 밖에는 人間의 罪에 相當한 滿足을 치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他人은 아무라도 獨生者를 하나님께 바칠 만한 資格이 없었기 때문이다.⁴⁰⁾ 이렇게 Christ 는 祭司長의 代役者로서 人間과 神과의 和睦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人間을 爲해서 이와 같이 犧牲物이 되신 것이다.⁴¹⁾

Augustinus 도 人間을 爲한 Christ 의 使役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人間들을 救援하는 方便으로 獨生者 Christ 를 通하여 人間을 부르시고 Christ 를 信仰함으로써 救援의 通路가 열린 것이다.”⁴²⁾

IV. 救援을 받은 人間

自身을 Zarathustra 의 主人公으로 比喩한 Neitzsche 와 같이 아무렇게나 던져진 洞窟의 人間들은 絶對地者의 救援의 손길이나 同情이 必要치 않지만 失樂園以後의 人類는 絶對者의 救援이 要請되는 것이다. 그 理由는 失樂園以後에 부여된 罪값 때문이다. 그러므로 罪의 함정에서 脫出되지 않으면 人類는 永久히 苦惱 속에서 棲息할 수밖에 없고 罪값으로 因한 不安한 存在가 된다. Calvin 은 人間論을 언제나 正統神學 위에서 展開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Adam, Eve 의 墮落으로 因하여 神的形像이 人間 속에서 全적으로 抹消되었고 파괴된 것은 아니로되 그 腐敗성이甚

39) Calvin, II. 15. 6.

40) Calvin, II. 15. 6.

41) *Ibid.*

42) Confession X. 43 ~ X. 44.

하여 殘在한 形體가 무서운 만큼 주악하게 驕形으로 되었다고 했다.⁴³⁾ 따라서 우리의 救出을 爲한 恢復의 시작은 Christ 에 依하여 얻은 再生으로부터 된다.⁴⁴⁾ Soteria (救援)는 全的으로 墮落한 人間의 힘으로는 到底히 不可能하고 Christ 에 依하여서만 可能한 것이다. 萬若 그리스도의 救援이 없다면 基督教은 人間의 運命에 對해서 어두운 悲劇을 宣言하는 宗教가 될 것이다.⁴⁵⁾ 그러나 基督教은 人間救援의 原理를 明確하게 提示해 주었다. 墮落한 罪人들의 그리스도의 十字架 功勞를 通하여 改革의 人間이 되는 것이다. 罪와 不幸의 어두운 늪에서 脫出하여 生命과 幸福에 이르는 新福音을 提供하고 있다. 舊約 39 卷은 宇宙創造의 설화에서 비롯하여 救世主의 간절한 待望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民族史이며 人類를 爲한 救援史이다. 罪와 墮落 속에서 呻吟하고 있는 人類에게 神은 獨生者 Mesia(Χριστός)를 보냄으로서 救援의 通路를 열어 주었다. 이는 人間에게 許諾하신 神의 最大 恩寵이다. 즉, 하나님께서 人類를 사랑하신 道成人身의 方法이다. 이러한 “Incarnation”은 人間을 爲한 絶對者의 最大讓步요 最高者의 自己 犧牲이다. 故로 人間이 義롭다고 稱하는 “Sanctification”이나 救援 받음의 原理는 人間行爲에서 獲得한 것이 아니고 전혀 許諾하신 恩惠이다. 使徒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義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⁴⁶⁾ 고 했고, 로마서에서는 “오직 罪人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⁴⁷⁾ 고 말했다.

1. 人間이 要請하는 믿음이란?

참된 救援的 信仰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重生한 生活에 그 뿌리를 박고 있는 不動의 信仰을 通稱한다. 이 信仰의 의식적 活動은 점진적으로 하나의 習慣을 形成해 나가는 것이다.⁴⁸⁾

참信仰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依地하여야 하며 盲目的이고 一時的인 流動心理가 아니다. 基督教信仰은 迷信的인 淺薄한 行爲이거나 어떤 궁지에 倒達했을 때 作用되는 콤프렉스의 投射行爲가 決코 아니다. 基督教의 믿음이란 神과 Christ

43) Calvin, I. 25. 4

44) *Ibid.*

45) 정진경, 「신학과 목회」(서울:성광문화사, 1977), p.39.

46) 갈 2:16.

47) 롬 1:17.

48) L. 벨굽, 「기독교신학개론」, 신복윤 역(서울:은성문화사, 1976), p.274.

에 對한 全的 信賴이며 그를 救世主로 迎接하여 條件없이 사랑하는 情熱的 行爲이다. 그러나 聖經에 示된 啓示를 一의 言으로 認識하는 便은 結局 聖靈의 證言인 것이다.⁴⁹⁾ 즉, 聖靈의 證言이 人間 안에서 信仰을 産出시킬 수 有다. 聖靈(πνευμα ἁγίου)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一의 子이며 萬民의 救主이심을 人間의 마음에 證據하여 믿게 하시며 信者가 一의 子인 것을 그의 心靈에 證據하여 救済의 確信을 준다(요일서 5:5-7). 바울은 “너희가 恩惠를 因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救済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一의 物이다”⁵⁰⁾ 고 했다. 즉, 一을 믿는 信仰은 一께서 주시는 物이요 또한 信仰은 聖靈으로 얻어진 人間만의 特權이다.

2. 悔改를 體驗한 人間

히브리語로 「悔改」의 意味는 「歎息」(D⌒+)인 人間들이 罪에서 돌이켜 神께 向하는 心理作用을 말한다(申 4:30, 詩 7:12). 헬라語의 “μετάνοια”는 罪人이 神께 歸依하는 聖靈의 變化를 意味한다. 福音의 全體를 要約하면 實로 悔改와 赦罪함의 過程이라고 할 有다. 信仰을 論함에 있어서 前者의 二要素를 除外한다면 불모와 불구가 될 是當然하다. 그러면 悔改와 赦罪함, 즉 「生命의 更新」과 「값 없는 和解」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是, 이들은 信仰을 통해서만 人間들이 얻을 有는 是이다.⁵¹⁾ 여기서 強調할 是 悔改와 信仰은 分離할 有는 相互關係를 갖고 有다. 罪人된 人間이 사탄의 支配와 罪의 名에와 罪惡의 悲慘한 예속으로부터 解放되어 一의 國으로 옮겨가기 爲하여 지난 生涯의 過誤로부터 돌아가서는 一切의 努力을 悔改運動으로 기울이지 않는 限 福音이 주는 恩寵을 받아 누릴 有는 是이다. 悔改는 兩面을 볼 有는 是, 첫째는 죽는 是이요, 둘째는 새롭게 決斷하는 是이다. 眞情으로 罪를 스스로 認識하게 되면 罪를 憎惡하고 自身의 悲慘과 亡하게 된 自身을 告白하고 새사람되기를 회구한다. 뿐만 아니라, 一의 審判이 有다는 嚴然한 事實 때문에 공포에 빠지고 絶望하게 된다. 이것이 悔改의 첫 部分인데 痛悔라고 稱한다. 그리고나서 새로 사는 役事가 發生된다. 罪 때문에 좌절한 後에 一의 慈悲로 그리스도를 通하여 모든 苦難과 恩惠와 救済을 받음으로 死亡에서 生命으로 돌아가는 是을 말한다. 또한, 悔改

49) 박형룡, 「교리신학 究원론」(서울 : 한국기독교연구會, 1983), p.259.

50) 엡 2:8.

51) Calvin, III. 3. 1.

는 神께 돌아가는 行爲이다.⁵²⁾ 즉, 옛 風俗과 生活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生活能力⁵³⁾ 이 생기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方向轉換者가 되는 것이다. 또한, 悔改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信仰行爲이다.⁵⁴⁾ 이러한 悔改의 役事는 信者의 불꽃이다. 이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 그리스도의 形像이 穩全히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 悔改 없는 아나니아는 滅亡했고⁵⁵⁾ 反對로 悔改한 다윗임금은 하나님께 認定받았으며 멸시와 賤待에 살던 사개오는 悔改함으로 救援받은 것이다.⁵⁶⁾

Augustinus 는 人間의 感情이나 肉慾 等 非理性的 要素들이 全 生涯의 길잡이가 될 경우 그 人生 全部가 罪의 길에 서고 그러한 罪人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罪人들도 眞情한 悔改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안길 수 있다고 主張했다.⁵⁸⁾

3. 以信得義된 人間

前節에서 悔改한 人間들은 하나님의 決定論 안에서 稱義된 者, 즉 義人으로 認定받은 者이다. 이것이 「以信得義」라는 神的 準則이다. 다시 말해서 「義認」의 概念은 하나님의 絶對法에 對하여 違背된 또하나의 法則이다. “하나님 앞에 義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審判에 있어서 義로 간주하고 그 義 때문에 容納이 된 者를⁵⁹⁾ 말한다. 信仰生活은 認識에 그치거나 瞬間的 感情이 아니고 意志에 屬한 決斷이다. 意志의 決斷은 하나님의 要請하시는 善行에 호응하고 行하려고 努力한다. 그러나 그 行爲는 人間的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恒常 不完全狀態이다. 不安定한 自身の 行動은 언제나 不安과 긴장을 超來하며 人間들은 落心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러한 人間의 失手와 不充分한 人間行爲가 연속됨에도 不拘하고 하나님은 우리 人間을 義롭다고 간주하고 認定하게 되는 것이다. 設令 人間들이 罪를 犯해도 “그가 罪人의 狀態로서가 아니라 義人으로 認定될 때를 말하는 것이요 그 령기 때문에 모든 罪人들이 쓰러질 때 하나님의 審判臺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것

52) *Ibid.*, Ⅲ. 4. 2.

53) 롬12:2.

54) Calvin, Ⅲ. 4. 2.

55) 행 5:5.

56) 눅 19:1-5.

57) Confession Ⅷ. 5.

58) *Ibid.*

59) Calvin, Ⅲ. 3. 1.

이다.⁶⁰⁾ 믿음으로 義롭다함을 얻었다는 者는 行爲의 義로움부터 배척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因하여 하나님 앞에 罪人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義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말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稱義에 對해서 定義를 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義롭다 함을 單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義로운 사람으로서 그의 사랑 가운데 영접해 주시는 恩惠를 말하는 것”⁶¹⁾ 이라고 說明한다. 이렇게 罪人이 義롭게 되어 하나님의 子女로 입양될 때 子女의 權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다. 同時에 하늘에 간직한 바 “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企業”⁶²⁾ 을 얻을 수 있는 資格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以信得義의 可能性과 그 源泉은 人類를 代贖하신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의 本體이신 예수께서 十字架에 죽으심으로 人類의 罪를 代贖하신 것이다. 예수는 證據하시기를 “나는 善한 牧者라 善한 牧者는 羊을 爲하여 그의 生命을 버린다”⁶³⁾ 고 代理的 爲人贖罪行爲를 比喻로 말씀했다. 人間을 爲한 代理的 贖罪는 바로 祭司長되신 그리스도만이 履行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純潔하고 흠도 없는 全人으로서 自身の 聖潔(本質的 聖潔)에 依하여 우리 人間들을 하나님께 和解시켜 주는 仲保者이다.⁶⁴⁾ 하나님의 公義로우신 詛呪는 하나님께 人間의 接近을 不許하고 審判主 하나님은 우리 人間들에게 震怒하고 계신다.⁶⁵⁾ 따라서 祭司長(Christ)이 人間들을 爲하여 하나님의 恩惠를 얻고 그의 震怒를 鎮靜시키기 爲하여 그리스도께서 補償으로서 介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이 偉大한 職分遂行에 祭物化된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補償에 依하여 우리는 아무런 功勞나 善行이 必要없이 믿음으로만 義롭다고 (sanctification) 認定받을 뿐이다.⁶⁶⁾

4. 聖靈을 體驗하는 人間

聖靈體驗이란 概念은 聖書에 根據한 것이며 Thomas Aquinas, Augustinus, John Wesley 등과 함께 Calvin 의 力說했던 問題이다. 他宗教와는 달리 神學上 普編的으로 強調하는 것이 聖靈의 體驗이다. 聖靈充滿의 體驗⁶⁷⁾ 은 人間들의 人格變化에

60) Calvin, Ⅲ. 11. 2.

61) *Ibid.*, Ⅲ. 11. 2.

62) 전 1:4.

63) 요 10:12-15.

64) Calvin, Ⅲ. 15. 3.

65) *Ibid.*

66) 갈 2:16-17.

67) 행 2:1-5.

基本이 됨을 말하고 있다. 獨善의 宣言이라 할 수 있는 것은 他 道德과 人間教養으로는 人格變化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人間을 聖靈의 씻음으로만 全人的 人格者가 된다는 것이다.⁶⁸⁾ 비더 울프(W. E. Bider Wolf)는 聖靈의 名稱을 52種으로 區分했다. 知慧의 神, 모략과 才能의 神, 여호와를 敬畏하는 神, 眞理의 神, 保惠師, 啓示의 神 等 多樣한 名稱이 있다.⁶⁹⁾ “知慧와 聰明의 神”은 이사야 11:12 에서 言及한 바 있는데, 이는 聖靈은 人間들의 屬性처럼 人格的 神임을 말하고 있다. 또, “保惠師”란 聖靈의 意味는 慰勞者, 勸告者의 뜻인 바, 이는 教育的으로 相談者(Counsellor)라는 뜻이다. 實로 人間과 Christ 를 하나로 連結해 주는 人格的 神이다.⁷⁰⁾ 故로 聖靈은 不可視의 人格者이다. 善으로 引導하는 至高善이요 “ide”의 靈이다. 또한, 三位一體(trinity) 中의 一部로서 超人的인 神格을 所有한 것이다. 絶對他者的인 하나님(YAHWeH)과 失樂園의 曠野에 被投되어진 Adam의 後遜들間에 實在하며 倅로는 人間 個個人의 心中에도 實存해 계신다.

따라서, 오늘날 情緒教育에 있어서 問題의 解決을 行動科學이나 精神分析에만 依存하고 있으나 이들 方法보다 聖靈의 人間治療法은 最上의 것이다. 聖靈께서 人間들의 心中에 內在하시면 人間들을 慰勞하고 心靈을 變化시키며 人間과 더불어 相談하게 된다. 한편, 넬스 페레(Nels F. S. Ferre)는 聖靈을 個人教師(tutor)로 說明한 바 있다. 그는 하나님을 教育者(educator)로 예수님을 模範者(exampler)로 分類해 보았다.⁷¹⁾ 여기서 聖靈은 義의 領域과 善을 成長시키는 領域內에서 그리스도에게 引導하는 個人教師(tutor)이며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일들”(The things of Christ)을 調査하며 믿는 자들을 “모든 眞理” 가운데로 引導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個人指導教師이다. 聖靈은 個人指導者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通하며 그리스도에게로 人間들을 引導한다.⁷²⁾

그러므로 學生들을 教育하는 데는 一段階의 過程 즉, 悔改와 重生의 體驗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高段階의 聖靈의 體驗을 힘입고 信仰이 成長해야 된다. 使徒 바울은 다메섹 途中에서 놀라운 神秘的인 體驗을 가졌지만 肉體의 情慾을 쳐서 不斷히 靈의 生活의 向上에 힘쓴 것처럼⁷³⁾ 聖靈의 能力으로 靈力의 向上을 도모했다.

68) 요 16:13.

69) R. S. Lack,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Chicago : Moody Press, 1972), p. 25.

70) Calvin, III. 1. 1.

71) 넬스 F. S. 페레, 「기독교교육신학」, 이정기 역(서울 : 보이스사, 1979), p. 207

72) *Ibid.*, p. 224.

73) 빌 3:11-16.

聖靈의 指導를 받으면 하나님의 靈感(inspiration)에도 順應할 수 있다. 聖靈은 “πνευμα ἁγίου” (Holy spirit)이다. 이 거룩한 靈은 神的인 inspiration을 所有했고 人間的인 imagination은 決코 아니며 質的 差異가 있다. 따라서 聖靈을 體驗하면 神靈한 思索과 神의 깊은 世界까지 洞察할 能力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實存을 肯定하는 限 聖靈의 實存을 否定할 수 없고 聖靈의 體驗이 없다면 眞情한 神意志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5. 人間은 祈禱의 存在

祈禱는 聖徒의 生活이요 人間들의 一般的 心性의 作用이다. 아무리 聖靈의 體驗이 있고 信仰의 絶頂에 倒達했어도 祈禱가 中斷된 信仰은 瞬間的 感情에 머물 수 있는 危機에 이른다. 反對로 聖靈의 계속적 役事와 持續性도 祈禱의 生活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칼빈은 “祈禱라는 惠擇을 通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人間을 爲하여 豫備해 주신 富에 倒達할 수 있다”⁷⁴⁾ 고 말했다. 祈禱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連續이 斷切되며⁷⁵⁾ 人間의 要求를 呼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⁷⁶⁾ 또한, 祈禱는 “救援에 對한 唯一한 교두보”⁷⁷⁾ 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獨生者 예수님도 人間들에게 祈禱의 本을 보여 주셨으며 聖經上 偉大한 人物들도 祈禱의 勇士이었다. 教育史에 등장된 成功的인 人間들도 祈禱의 伏兵들이었음을 歷史가 立證하고 있다. 聖經에 보면, 受難 中의 人間들도 祈禱했고⁷⁸⁾ 信仰과 精神的 武裝을 爲해서도⁷⁹⁾ 祈禱를 熱心히 했고 平凡한 事件들에 對해서도 祈禱⁸⁰⁾ 했으니 祈禱 生活은 人間의 生活中 하나로 되어 있다. Freud의 投影說에서 評價되는 心理作用이 決코 아니다. 즉, 軟弱한 者와 無能者가 即自的으로 마음에 품는 어리석은 獨白이 아니다. 祈禱는 水準높은 人間들의 對神關係를 유지하는 靈的 呼吸이요 靈的 交際요 靈的 對話이다. 舊約의 豫言者 Samuel은 “祈禱 쉬는 罪를 犯치 말라”⁸¹⁾ 고 했으며 Calvin은 “人間의 呼吸이 斷切될 수 없는 것처럼 쉬지 말고 祈禱하라”⁸²⁾

74) Calvin, Ⅲ. 20. 1.

75) *Ibid.*

76) *Ibid.*

77) *Ibid.*

78) 마 26:41.

79) 엡 6:18.

80) 살전 5:16-17.

81) 삼상 12:23.

82) Calvin, I. 6. 2.

고 力說했다. 祈禱는 死神論者 F. Nietzsche 까지도 否定하지 않았다.

6. 聖書의 人間形像

聖經을 多讀함은 人間에게 主要한 位置를 차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聖書는 人間들의 知的 意的 糧食이요, 靈的 人間化의 길잡이가 된다. 또한, 聖書는 人間을 하나님 앞으로 옳게 引導할 수 있는 唯一한 助力者이다.⁸³⁾ 또, 聖書는 人間을 救援할 수 있는 말씀의 빛을⁸⁴⁾ 주신 하나님 말씀 自體이다. 故로 바람직한 人間이 되려면 聖經 읽는 生活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牧師는 每日 詩篇 5章과 箴言 1章을 읽는다고 했다. 그 理由는 每日 하나님과 正當한 關係를 維持하기 위하여 읽으며 對人關係에서 올바른 關係를 保持하기 爲하여 서었다고 한다. 詩篇記者는 “내가 主께 犯罪하지 아니하려고 主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⁸⁵⁾ 고 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除外한 人間의 倫理와 道德的 行爲로는 하나님의 義를 充足시켜 드리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罪人인 것을 告白하고 있다. 使徒 바울은 青年 指導者(바울의 後繼者)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勸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着念하라”⁸⁶⁾ 고 再教育하였다. 萬若 聖書を 모르는 信者가 있다면 그는 分明한 誤謬에 빠진다⁸⁷⁾ 고 칼빈은 말했다. 즉 聖書는 人生의 길잡이요 人生의 捷徑임을 力說했다.

칼빈은 “人間이 하나님을 忘却하는 망령에 빠지기 쉬운 것과 선뜻 誤謬에 기울어지고 虛妄한 宗教 따위를 때때로 捏造하는 것은 聖經을 等閑視하기 때문”⁸⁸⁾ 이라고 力說했다. 人間들은 聖經을 읽지 않고 聖經에 對한 知識이 없을 때 엄청난 犯罪에 빠질 수 있다. 또한, 聖經은 全人教育의 教育課程인 것을 銘心해야 된다. 바울은 “모든 聖經은 하나님의 感動으로 된 것으로 教訓과 責望과 바르게 함과 義로 教育하기에 有益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穩全케 하려 함이라”⁸⁹⁾ 고 말했다. 人間들은 聖經을 읽지 않을 때 自己矛盾에 빠지고 自己의 참모습을 잘 記憶할 수 없는 것처럼 恒常 自身을 忘却하게 된다.⁹⁰⁾

83) *Ibid.*

84) *Ibid.*

85) 시 119:11.

86) 딤후 4:13.

87) Calvin, I. 6. 3.

88) *Ibid.*

89) 딤후 3:16-17.

90) 약 1:23-24.

聖經은 良藥과 같다고 하겠다. 아무리 좋은 藥이 있어도 그를 直接 服用치 않으면 有益이 없는 것처럼 聖經을 장서 중에 備置해 놓아도 愛讀하지 않으면 無用之物이다. 聖經은 人間이 읽고 吟味할 때 心靈의 改革과 人格變化가 可能하며 病든 靈魂들이 治療될 수 있는 것이다. 人間의 靈의 生活은 聖經多讀에 正比例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信仰의 體驗, 즉 贖罪의 經驗이 있고 祈禱生活을 徹底히 하며 聖經을 多讀하여 恩惠를 追求하면 하나님의 뜻에 合當한 바람직한 人格을 形成할 수 있는 것이다.

V. 結 論

Calvin은 그의 人間論을 聖書에 根據하여 墮落한 人間에서부터 救援된 人間까지를 分析했다. 즉, 神의 至上命令(一回的 範疇命令)을 不服한 人間은 墮落했고, 따라서 原來的인 神의 形像이 喪失되며 人性은 全的으로 腐敗했기 때문에 人間들은 恒常 善惡二元的인 갈등 속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人間만의 墮落과 人間만의 受難에 그치지 않고 모든 被造物까지 被害를 當하여서 被造物들은 苦悶하며 結局 人間과 함께 죽음에 이르는 存在가 된 것이다.

Calvin은 墮落된 人間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Christ를 통한 救贖의 새 役事를 創案하셨다. 이러한 救援의 條件은 福音에 根據해야 되고 福音(εὐαγγέλιον)이란 하나님을 믿는 行爲와 悔改가 前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믿음의 行爲나 人間의 懺悔가 豊富해도 그것 自體가 하나님의 義를 充足시키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認定해 주신 “稱義”(以信得義)가 必然的으로 作用된다고 했다. 이러한 人間化의 段階, 信仰化의 段階에서 最高의 人間像을 聖書는 提示해 주었다. 그러한 人間들은 基督教의 指導者이었고 民族의인 領導者가 된 것이다. 첫째는 Moses型的 Christian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信仰에 바탕하여 愛國心과 勇氣로서 이스라엘 民族을 애굽에서 解放시켰고 福地, Canaan으로 引導하게 하였다. 新約에서는 “Paul”型的 크리스찬을 信仰의 모델로 한다. Paul은 일찌기 헬렘이즘 文化圈에서 修學했던 로마의 高官이었고 Gamaliel 문하에서 律法을 學習한 엘리트였다. 그러나 Damascus에서 改宗하여 Christ의 宣教師로서 偉大한 神學者로서 東西文化的 版圖를 바꾸어 놓은 大使徒였다. Paul型的 人間, Paul型的 Christian이란 그만이 所有하고 있던 완숙함과 謙遜의 美德이다. 그러므로 Christian은 Moses나 Paul을 理想的 信者로 尊敬하고 있다.

Inmanuel Kant 가 그의 實踐理性比判(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에서 人間의 道德律, 格率을 宣稱했으나 Moses 나 Paul 은 Kant 의 先覺者로서 이미 人間道德律을 完成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Paul 의 書信 中에는 絶對的인 格率이 內包되었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I. 國內서적

- 김영한, 「기독교 신앙개설」, 서울:형설출판사, 1983.
- 김동수, 「예배학개론」, 서울: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67.
- 김득룡, 「기독교 교육원론」, 서울:총신대 출판부, 1977.
- 김영규, 「기독교 교육학」,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김양선,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기독교문사, 1980.
- 고일선, 「조직신학」,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3.
-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0.
- 명지대학교 출판부, 「명지학원 30년사」, 서울:명지대학교 출판부, 1979.
- 박형룡, 「교의 신학신론」, 서울:한국기독교연구원, 1983.
- 손인수, 「교육사, 교육철학연구」, 서울:문음사, 1955.
- 오인탁, 「기독교 교육론」, 서울: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6.
- 유상근, 「기독교 신앙입문」, 제 4 집, 서울:명지대학교 출판부, 1982.
-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6.
- 원종홍, 「동서양 철학사상」, 서울:수덕문화사, 1981.
- 전택부, 「기독교 교육의 과제」, 서울: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6.
- 정웅섭, 「기독교 교육개설」, 서울: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6.
- 정진경, 「신학과 목회」, 서울:성광문화사, 1977.
- 종신목회연구원, 「갈빈주의」, 종회신학연구원논문집, 1981.
- 최재희, 「역사철학」, 서울:보이스사, 1979.

Ⅱ. 번역서적

- 페레, 넬스, 「기독교 교육신학」, 이정기 역, 서울:보이스사, 1979.
나이브, J. L., 「고대기독교 사상사」, 서남동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5.
뤼처드, 「교육신학과 실제」, 문창수 역, 서울:정경사, 1984.
벌게스, H. W., 「기독교 교육론」, 노태영 역, 서울:정경사, 1984.
멜콕, L., 「기독교 신학개론」, 신복윤 역, 서울:은성문화사, 1976.
아담스, J. E., 「목회상담학」, 정정숙 역, 서울:총신대 출판부, 1981.
압바, R., 「기독교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영삼 역, 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
1981.
이비, C. B.,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역, 서울:기독교교육연구원, 198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 1권, 김문제 역, 서울:세종문화사, 1977.

Ⅲ. 외국서적

- Althaus, Paul, *Grundriß der Dogmatik*, I, Teil, 2, Aufl.: Erlangen, 1936.
Anderson, Ray S., ed., *Theological Foundation for Minist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79.
Berkhof, Louis,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book House,
1979.
Bultman, R., *Christus der Gesetzes Ende*, in: *Glauben und Verstehen* 2, *Theologie des Neues
Testaments*, 6, Auflage, T.C.B. Mohr, Tubingen, 1968.
Byrne, H. W.,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7.
Clavin, J.,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Cubberley, E. P., *A Brief History of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22.
Kaiser, Otto, *Einleitung in Altes Testaments*, 3, Aufl., Gerd Mohn, 1975.
Kennedy, William Bean, "Christian Education through History,"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Edited by Marvin Taylor Nashville: Abingdon Press, 1966.
Lebar, Lois E., *Education That is Christian*, Westwood, N.J.: Revell, 1958.

Lack, R. B.,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Chicago: Moody Press, 1972.

Miller, D. G., *How to Study the Bible*, London: SCM Press Ltd., 1962.

Monroe, P., *Founding of the American Public School System*, New York: MacMillan Co
1944.

Pohlmann, H. G., *Abriß der Dogmatik*, Gu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2, Aufl, 1975.

Prederick, Mayer, *A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0.